

구로 고척스카이돔에 '제2책보고' 서울 서남권 책 문화 활성화 시동

이르면 이달 기본계획 수립 진행 문화시설 열악 서남 균형발전 도모 신축대비 비용·시간 절감 등 적합

서울시가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책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남권에 '제2책보고'(가칭)를 조성해 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고척스카이돔 지하 1층(3372㎡)을 제2책보고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한다.

시는 "문화시설이 빈약한 서남권의 고척스카이돔 지하 유휴공간을 책 기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책문화 활성화, 시설의 효율적 활용, 서남권 문화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문화시설 권역별 분포 현황 자료에 의하면 1만평당 시설 수는 서남권이 2.05개소로 전체 5개 권역 중 꼴찌였다. 1만평당 문화시설 수가 가장

많은 도심권은 11.19개소로 서남권의 5.46배에 달했다. 이어 서북권 2.91개소, 동남권 2.43개소, 동북권 2.16개소 순이었다.

1만평당 문화시설 연면적은 도심권이 1만7521㎡로 1위를 차지했다. 동남권 3141㎡, 서북권 2523㎡, 동북권 2014㎡이 뒤를 이었다. 최하위를 기록한 서남권은 1만평당 문화시설 연면적이 1595㎡로 도심권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시는 지난 2019년 송파구에 건립한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의 성공적 운영을 계기로 제2책보고 설립 대상지를 조사하던 중 올 7월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고척스카이돔 지하공간을 후보지로 검토해달라는 건의를 받아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제2책보고를 고척돔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공급이 적은 서남권에 적절한 시설"이라며 "접근성, 주변 환경, 인구구성을 고려할 때 복합문화공간의 입지로 고척스카이돔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시는 랜드마크시설로서 입지상 이점이 많은 고척스카이돔을 제2책보고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신축과 비교해 사업비는 100억원 감소하고 시설 활성화 비용으로 연간 10억원 상당을 아낄 수 있으며 사업 추진 기간이 2년 이상 짧아진다고 시는 덧붙였다.

제2책보고에서는 ▲아트북, 독립출판 등 특색있는 테마의 플랫폼 ▲돔구장 특성을 고려한 엔터테인먼트 요소 ▲포스트 코로나 및 4차산업 시대를 반영한 특화된 인테리어 ▲어린이, 청장년, 어르신 맞춤형 가족친화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야구 관람객을 위한 스포츠 관련 단행본, 잡지, 소품도 비치·전시할 예정이다.

시는 "고척돔 지하1층은 2016년 지하푸드몰 운영 중단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성공적인 주경기장 운영과 연계한 효율적 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집체된 시립시설 활성화, 사업비 절감, 추진기간 단축 등이 기대돼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집에서 만나는 전통시장 맛집

온라인 유통업체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나서고 있다. 유통업체에 따르면 쿠팡의 음식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는 최근 서울시와 손잡고 전통시장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중로 광장시장과 강남 개포시장, 마포 망원동월드컵시장 등 13개 구의 22개 시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광장시장에서 앱을 통해 쿠팡이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무급휴직 노동자 5500명 고용유지지원금 100만원

코로나 재확산 고용위기 극복대책

서울시, 취업 취약계층 1만명도 지원 이달 접수, 내달부터 지원금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사태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55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공공일자리와 청년인턴을 합해 1만명 넘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대책'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7월 1일 이후 서울지역 50인 미만 업체의 5월 이상 무급휴직자 가운데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30일 이상 무급 휴직과 매출 30% 감소 등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달 접수를 시작해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지원업종 등 요건을 확인한 후 업체 소재지 자치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방역 지원과 방역수칙 단속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분야의 공공일자리 4528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2개월 동안 주당 40시간 이내 근무하고 월 최대 180여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정부·자치구와 협력해 일자리를 발굴한 뒤 10월 중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취업한파를 겪는 청년들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시작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200곳에 2명씩 배치해 모두 400명의 청년인턴을 운영한다.

청년인턴은 2개월간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다. 시는 인턴기간이 끝난 뒤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이 인턴을 자체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존 1인당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 이외에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해당 기업의 대표나 임원의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은 청년인턴으로 지원할 수 없다. 시는 이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고용상황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따져 내년도도 계속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무급휴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핀셋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신보, 상권분석 경진 '김·소·희' 팀 최우수 선정

소상공인 지원 일환 온라인 개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3회 상권분석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최우수상 수상자로 '김·소·희' 팀(성균관대 통계학과)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울신보가 상권분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권분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권분석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외부자료와 연계해, 현재 운영 중인 상권분석 서비스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전국 주요 대학의 대학생, 교수(연구원 포함), 일반인(업체 관계자)을 대상으로 대회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를 받은 결과 총 43개 팀에서 101명이 참가했다. 서울신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심사 과정을



제3회 상권분석 빅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

/서울신용보증재단

비대면 원격접속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울신보는 43개 팀 가운데 8개 팀을 최종 결선 진출팀으로 선정, 9월 25일 결선대회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소·희' 팀은 '베이지안 방법론을 이용한 창업위험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요식업종별 예측 생존 기간을 제

시했다. 심사위원들은 "소상공인 폐업률이 증가하는 요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선정했으며 최우수상 1팀에는 상금 4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각각 200만원, 장려상 5팀에는 각각 100만원을 수여했다.

/김현정 기자

열수송관 손상감지 시스템 개발·실용화

서울기술연구원, 파열사고 예방

서울기술연구원은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예방할 첨단 손상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실용화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 도시인프라연구실에서 개발한 해당 시스템은 첨단 센싱과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로 구성됐다. 첨단 센싱 기술은 땅속에 매설되는 분포형 센서와 시간반사영역법(TDR) 계측기기로 이루어져 있다.

무선센서네트워크기술은 사물인터넷(IoT) 센싱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기기와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술로 구성됐다.

TDR 계측기기는 전선에 전기펄스(Step pulse)를 주사한 후 반사된 값을 측정해 끊어진 위치를 찾는 장비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술은 네트워크 기기를 공간적으로 배치해 IoT 센싱망을 구성하는 것으로 선(Line), 트리(Tree), 메쉬(Mesh) 등의 형태가 있다.

최근 노후 열수송관의 파열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점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새로 개발된 첨단 손상감지 시스템은 손상 정보와 위치를 즉시 파악하고, IoT 센싱망을 통해 관리자에게 전송한다.

/김현정 기자

8일부터 국제정원박람회 코로나19에 온라인 개최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Virtual SIGS 2020)'를 연다고 4일 밝혔다.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를 확대한 국제적 성격의 정원박람회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원 조성 오프라인 참여 행사를 내년 5월로 연기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우선 이달 8일부터 일주일간 '2020 국제정원심포지엄 워크(WEEK)'가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5일 (월)

음력 : 8월 19일

수도권 날씨

10~1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5/19

동두천 6/19

백령도 13/16

파주 5/18

가평 4/18

서울 10/18

양평 6/19

인천 12/18

수원 10/17

용인 10/17

평택 7/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